

감자 '탐나' 파종은 '대지'보다 다소 넓게

문애경

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064)760-7464

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는 더덩이병에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맛도 좋고, 모양이 둥글고 눈 깊이가 얇은 '탐나'를 2017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. '탐나'는 생육기간이 길고, 생육이 왕성하다. 따라서, 지상부 생육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품종인 '대지'와는 다른 파종 간격 설정이 필요하다.

○ 파종 간격에 따른 수량 비교

지상부 생육이 왕성한 봄 재배 시 골 사이(조건)를 70cm, 감자 사이(주간) 20cm로 파종하면, 관행적 파종 간격인 조건 65cm, 주간 20cm 보다 생육 공간이 넓어 지상부 생육이 양호하였고, 감자 상품 수량은 3,282kg/10a로 관행보다 551kg 많았다(20%). 또한, 가격이 높은 150g 이상 규격의 수량도 2,429kg/10a로 관행보다 38%(669kg) 증수되었다.

